

## 우빠와나경

(Upavāṇasuttam, 상윳따니까야 S12.3.6,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우빠바나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존자 우빠바나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우빠바나]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에 관해 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세존을 허위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진리에 일치하는 바대로 설명하는 것이며 법다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결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세존] "우빠바나여, 괴로움은 연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무엇을 연유로 해서 생겨나는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이와 같이 내가 말한 바를 설명한다면 허위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진리에 일치하는 바대로 설명하는 것이며 법다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결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우빠바나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그것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난다.

우빠바나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역시 접촉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다."

註.

- 우빠바나 : upavana. 優派摩耶.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수행승으로 아라한이다. 한번은 부처님께서 한 부위에 경련을 일으켰을 때 더운물과 약으로 치료해드렸는데, 부처님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부처님께서 쿠시나라에서 최후의 열반에 드실 때 부채를 부쳐드렸다.

# Suttantapiṭake

## Samyuttanikāyo

### Dutiyobhāgo

### Nidānavaggo

### 1. Abhisamayasaṃyuttaṃ

### 3. Dasabal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hassa

1. 3. 6

Upavāṇasuttaṃ

26. Sāvatthiyaṃ -

Atha kho āyasmā upavāṇ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saṅkamti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āyasmā upavāṇo bhagavantaṃ etadavoca:

Santi hi bhante,<sup>1</sup> eke samaṇabrāhmaṇā sayamaṅ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Santi hi pana bhante,<sup>2</sup> eke samaṇabrāhmaṇā paraṃ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Santi hi bhante, eke samaṇabrāhmaṇā sayamaṅkataṃñca paraṃkatañca dukkhaṃ paññāpentī. Santi hi pana bhante, eke samaṇabrāhmaṇā asayamaṅkāraṃ aparaṃkāraṃ adhiccasamuppann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Idha no bhante bhagavā kiṃ vādī? Kimakkhāyī! Kathaṃ byākaramānā ca mayaṃ vuttavādinō ceva bhagavato assāma? Na ca bhagavantaṃ abhūtena abbhācikkheyyāma? Dhammassa cānudhammaṃ byākareyyāma? Na ca koci sahadhammiko vādānupāto gārayhaṃ tṭhānaṃ āgaccheyyāti?

Paṭiccasamuppannaṃ kho upavāṇa dukkhaṃ vuttaṃ mayā. Kiṃ paṭicca? Phassaṃ paṭicca. Iti vadaṃ vuttavādī ceva me assa na ca maṃ abhūtena abbhācikkheyya dhammassa cānudhammaṃ byākareyya na ca koci sahadhammiko vādānupāto gārayhaṃ ṭhānaṃ āgaccheyya.

Tatra upavāṇa ye te samaṇabrāhmaṇā sayam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adapi phassapaccayā.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param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adapi phassapaccayā.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sayamkatañca paramkatañca dukkhaṃ paññāpentī, tadapi phassapaccayā.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asayamkāraṃ aparamkāraṃ adhiccasamuppann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adapi phassapaccayā.

[PTS Page 042] [\q 42/] tatra upavāṇa<sup>3</sup> ye te samaṇabrāhmaṇā sayam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e vata aññatra phassā paṭisaṃvedissantī'ti netam ṭhānaṃ vijjati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paramkat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e vata aññatra phassā paṭisaṃvedissantī'ti netam ṭhānaṃ vijjati.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sayamkatañca paramkatañca dukkhaṃ paññāpentī, te vata aññatra phassā paṭisaṃvedissantī'ti netam ṭhānaṃ vijjati. Yepi te samaṇabrāhmaṇā asayamkāraṃ aparamkāraṃ adhiccasamuppannaṃ dukkhaṃ paññāpentī, te vata aññatra phassā paṭisaṃvedissantī'ti netam ṭhānaṃ vijjati'ti.

-----

1. Santi pana bhante - machasaṃ -syā. 2. Santi pana bhante - machasaṃ - syā.
3. Tatrupavāṇa - syā.

**Sutta Pitaka**  
**Samyutta Nikāya**  
Division II - Nidāna  
Book 12 - Abhisamaya Samyutta  
Chapter 3 - Āhāra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2. 3. 6.

(26) Upavāṇa - Venerable Upavāṇa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Then venerable Upavāṇ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a side.

3. Sitting, venerable Upavāṇa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there ar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There ar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another. There ar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and another. There ar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neither brought about by oneself nor another, it comes about without a reason.

4. “Venerable sir, what is your view? And how do you declare it. Explaining it how, are there no rightful blames for the view?”

5. “Upavāṇa, I have said that unpleasantness is dependently arisen. Dependent on what is unpleasantness? Dependent on a contact. I am of this view. Explaining it thus, you do not blame, my view.

6. “Upavāṇa,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do so, on account of a contact.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another, do so on account of a contact.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and another, do so on account of a contact.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neither brought about by oneself nor another, it is without a reason too, do so on account of a contact.

7. “Upavāṇa,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will feel for it without a contact is not possible.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another, will feel for it, without a contact is not possible.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brought about by oneself and another, will feel for it without a contact, is not possible.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point out the view of action,

as unpleasantness is neither brought about by oneself nor another, it is without a reason too, will feel for it without a contact, is not possible.”